

내용 지식 구성을 위한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 방안
Jeong Sook Kim, President of IAKLE, Korea University

Saturday, June 30, 1:15-1:45 PM
SIEPR 130

근래 들어 학문 목적 학습자를 포함해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쓰기 교육 내용 및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과정 중심의 교육, 기술 통합 교육, 장르 및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를 활용해 주어진 한국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안 마련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고급 수준의 텍스트 이해와 산출에는 논리성과 맥락적 적절성 이외에도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학습자의 기존 지식과 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읽기·쓰기 교육으로는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은 논리적 텍스트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구상하기 및 고쳐 쓰기 단계에서 학습자간, 혹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활동을 통해 필요한 상호텍스트적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 지식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개의 유관 텍스트를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학습자에게도 스스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상호텍스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취득한 정보를 통합·구조화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 등을 거쳐 지식통합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읽기 활동을 구성하고, 이 지식통합 지식을 이용해 필자 자신만의 독창적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 간, 혹은 학습자와 교사 간 구두 상호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학습자들이 필요한 상호텍스트적 지식을 얻고 지식통합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